

테마 1 '관광 진흥'

참가지방정부	중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한 일 국 : 경상북도 본 :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기후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나라현, 가시하라시, 가쓰라기시, 이카루가초, 시모이치초
관계기관 등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주일사무소
강사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리저널 리포트에 의거한 발표개요



중국 · 허난성

허난성은 매우 풍요로운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의 혜택을 입고 있으며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서 경제발전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관광진흥에서는 폭넓은 프로모션을 통한 브랜드 수립을 지향하고 국제적으로는 쿵후를, 중화권 대상으로는 중국의 역사문화의 발상지임을 전면적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포럼과 페스티벌, 축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광도시로서의 국제적 지명도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먼저 말한 쿵후를 만리장성과 팬더에 이은 중국관광 제 3의 간판으로 하기 위해 소림사와 태극권의 성지 등과 연계한 조직적인 브랜딩을 추진하고 있다. '황하 실크로드 여행', '중화 고도 여행' 과 같은 국제적 일품 루트를 제안하여 인바운드 진흥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 · 산시성

산시성은 중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중국문화와 중화민족의 중요한 발상지 중 하나다. 관광을 기간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의 중심적 존재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다. 2020년까지 국내외로부터 총 수용관광객수를 7.3억명, 관광수입총액을 7,700억위안으로 인상하여 관광업의 부가가치를 GDP 대비 9.2%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인프라 건설과 관광지의 정비 등 소프트, 하드 양면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관광자원면에서 우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산업의 발전수준이 걸맞지 않기 때문에 참가지방정부의 경험에서 배워가며 글로벌 관광지로 만들어 갈 생각이다.



중국 · 뤼양시

뤼양시는 중후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어지는 관광지를 목표로 문화와 관광산업의 융합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면에서는 문화관광산업에 관한 정책문서를 교부하여 목표와 전략, 어프로치 수법 등을 명확화하였다. 시책면에서는 용문석굴과 백마사 등의 전통적인 관광지를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 발굴, 고도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 리조트지 건설, 입장료에 의지하는 경제에서 문화, MICE, 농업 등의 산업과 융합한 관광으로의 전환, 국내외에서의 프로모션을 통한 브랜드력 향상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산업 발전의 혜택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광 연간 티켓 시민우대’ 사업과 관광을 통한 빈곤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 린이시

린이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선상에 위치하는 중심적 도시로 교통편이 우수하며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약 2500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서성 왕희지와 서의 대가 안진경의 고향,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손자병법의 죽간이 출토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현재 농가 투어리즘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의 하나가 린이시에 있으며 전형적인 중국 북방지역의 농촌풍경 외에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희곡, 서커스, 무술, 중국차 등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린이시는 온천의 마을로서도 유명하여 다양한 효능을 가진 온천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바운드 투어리즘 시장의 발전을 위해 MICE의 적극적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말라카주의 역사적 도시군은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관광업은 말라카주의 경제, 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산업이며 관광진흥에 있어 역사적 자원의 보전과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말라카주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업을 지향하고 있다.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아래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천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외에 지역 커뮤니티에 전해오는 살아있는 전통적 문화의 보전을 지역문화의 진흥으로 접목시키고 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한편 자원보전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며 또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가치의 촉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정되어 있어 지역 전체의 참가가 부족하다는 과제가 있다.



한국 ·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한국 남동부에 위치하며 산, 강, 바다의 자연과 경관 등 에코 관광자원의 혜택을 입고 있다. 한국문화의 원류인 유교문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불교문화, 고대왕국의 가야문화 등 3대 문화의 중심지이며 석굴암과 불국사 등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등 약 80개의 다양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10월 11일~11월 24일)도 ‘문화로 개척하는 미래의 길’이라는 테마로 ‘2019 경주세계문화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도시로서 활약하여 지방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을 ‘대구 경북 방문의 해’로 규정하여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관광객 증가를 지향한 프로그램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 야마나시현

야마나시현에서는 관광객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액의 증가부진과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 새로운 여행니즈에의 대응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관광을 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 ①관광객의 니즈에 대응한 야마나시현만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소비액의 확대’, ②환대에 주체적으로 임하는 인재의 육성 등 ‘환대의 추진’, ③남알프스 및 주변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 지역본래의 가치를 연마하여 질높은 관광지로서 브랜드화하는 ‘지역자원의 연마와 활용’, ④통역안내사의 양성과 스마트폰 대응 타언어 앱의 제공 등 ‘외국인 여행객의 니즈에 대응’, ⑤ ‘타겟을 의식한 프로모션’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 · 미에현

미에현은 관광의 산업화를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광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광정책과 시설의 시책에 활용해 가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특전이 있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집한 데이터를 관광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서비스 등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MIE, Once in Your Lifetime’ (평생 한번은 방문하고 싶은 미에현)을 슬로건으로 국내외에서 미에현의 브랜드력을 높일 시책을 실천하고 있다. 이세시마 서밋의 무대가 되었던 시마시에서는 2차 교통대책으로서 MaaS(Mobility as a Service) 도입을 위한 실증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 시마네현

시마네현에서는 2013년의 이즈모타이샤의 ‘헤세 대천궁’에 맞춰 실시한 ‘신들의 고장 시마네 프로젝트’에 관민이 협력하여 정보발신과 환대체제 구축, 행사 실시 등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2013년부터는 ‘인연 맺어 주는 고장 시마네 캠페인’을 통한 정보발신 외에 국보 마츠에성, 세계 유산인 이시미긴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시책으로서 ‘피부미인현 시마네’를 키워드로 온천과 먹거리를 소재로 한 관광지 만들기과 정보발신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다른 도도부현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이어서 국제 연속 전세편과 정기편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본 · 나라현

나라현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면서도 관광력의 중요한 요소인 숙박, 먹거리, 교통에 과제를 안고 있어 당일치기, 통과형 관광지에 머무르고 있다. 급증하는 인바운드 관광수요에 대응한 숙박·체제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①숙박시설의 질과 양의 충실(Accommodation), ②체재환경의 쾌적성 향상(Amenity), ③먹거리 매력 향상(Appetite), ④효율적인 교통, 도로체계의 형성(Access), ⑤자연·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Attraction), ⑥즐거운 나라의 실현(Amusement)이라는 ‘6가지 A’에 착수하고 있다. 외국인 여행객수와 총숙박객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1인당 여행소비액, 특히 숙박객의 여행소비액을 증가시켜 가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의견교환내용

- 많은 지역에서 앞으로도 관광객이 증가해 갈 가능성이 높는데 앞으로는 관광객이 너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관광공해 등 새로운 문제도 발생해 갈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자기 지역만의 특징을 발굴해 가지 않으면 관광객들은 결국 어디가든지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들어 싫증이 날 것이다. 각 지역이 각자의 개성과 특징을 발굴해 가야 할 것이다.
(모타니 강사)
- 과거의 전통적인 관광에서는 ‘보는 것’이 중심이었다. 현재는 관광도 업데이트되어 리조트와 행사 등 ‘체험’하는 관광이 중시되고 있다. 지역의 독자적 자원을 살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뤄양시)
- 관광객이 특정 관광지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예약 데이터 등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이 어떤 곳을 방문하고 있는가, 어떤 곳으로 분산되어 방문하는 것이 좋은가를 분석하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뤄양시)
-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대도시를 경유하여 상호교류를 실시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공로를 비롯하여 앞으로 더한층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직접 지방도시들을 잇게 되면 교류의 확산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모타니 강사)
- 허난성은 국가의 ‘전국 전역관광 홀로그램 정보화 실시 모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역관광’이란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가자는 개념이다.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설비의 충실이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등 전체적인 체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허난성)
- 관광객의 만족도 상승과 반비례하여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뤼양시의 코멘트 중에서 빅데이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집중 완화를 도모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조화와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있다면 듣고 싶다.
(유엔세계관광기구 주일사무소)



- 경승지의 안전대책 등에도 선진기술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건설중인 그린로드 네트워크의 관리에서는 리스크의 사전 탐지와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와 ICT기술을 활용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형연휴나 공휴일 등 관광객이 피크에 달하는 시기에 관광객의 완화를 어떻게 도모해 갈지는 청두시에게도 앞으로의 과제다. (중국·청두시)
- 야마나시현은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당일 치기로 후지산에 갔다오는 관광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숙박객수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후지산에만 인기를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발길을 돌려 주유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가려 한다. (일본·야마나시현)
-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서자바주는 야마나시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모타니 강사의 질문에 대하여) 분명히 서자바주는 수도 자카르타에 가깝고 자카르타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매우 큰 도시다. 그러나 서자바주에는 산과 같은 자연자원이 있다. 자카르타에는 없는 것을 서자바주는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서자바주)
- 청두시에서는 그린로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 중 하나다. 일본에서 같은 사례로 선행 모델이 있다면 부디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기념품 개발, 그린로드의 공원 관리, 정비 등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여쭙고 싶다. (중국·청두시)
- 일본에서는 도로변에 공원의 기능을 하면서 지역특산품이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미치노에키’와 직거래판매소가 있다. ‘미치노에키’는 일본 특유의 명칭으로 1,000개소 이상의 시설이 각 지역에 독자적인 물품을 판매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어 경쟁하고 있다. 관광시설이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게소나 교류의 장이 된 경우, 시설 내의 레스토랑을 기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NPO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 등 지역진흥으로 연결된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시책은 세계에서 선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면 여쭙고 싶다. (모타니 강사)
- 기후현은 일본 내에서도 미치노에키의 수가 매우 많은 곳이다. 현 내의 오노초에 신설된 미치노에키에서는 특산품인 감을 활용한 마스코트 제작과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기념품의 개발,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유관광의 촉진과 숙박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명 주택공급회사와 연계하여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치노에키에 호텔을 건설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기후현)
- 역사적, 문화적 관광자원이 비슷한 지역끼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지만 국내에서 각 지역은 경쟁 관계에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양질의 관광 자원이나 지명도의 높이, 시설 등 서비스의 수준이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된다. 한편, 더욱 거대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연계 등 지방정부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해진다고 본다. 산시성은 중국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고 중국 인바운드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 (중국·산시성)

- 아시아는 2020년부터 2030년에 걸쳐 경제 레벨의 상승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국제관광 신장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관광의 증가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해 갈지가 중요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어 UNWTO에서는 현재 지속가능한 관광관측소(International Network of Sustainable Tourism Observatories(INSTO))라는 각 지역이 지표를 사용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책을 촉진하고 있다. 관광객이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유산의 보호나 관광지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해 갈지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체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 주일사무소)
- 2020년 UNWTO는 루럴 투어리즘이라는 테마에 주력해 갈 예정이다. 도시 주변의 지역을 관광을 통해 어떻게 활성화시켜 갈지 중심부 도시관광의 활기를 루럴(시골) 지역에도 불어넣기 위해 어떠한 시책을 펼쳐갈지에 대해 세계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하는 등, 중점적으로 실시해 갈 생각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 주일사무소)
- 2020년에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가 주요 마켓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앞으로는 더 한층 이 세대의 니즈에 포커스를 맞춘 투어리즘을 전개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루럴 투어리즘을 즐기려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방의 루럴 지역에서 시골생활을 체험해 보길 추천한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강사 총괄 코멘트)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가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물건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자신의 몸을 움직여 현장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젊은 세대는 단순히 관광지를 도는 것에는 흥미가 없지만 실제로 체험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 않나 또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투어리즘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근년에는 특히 젊은 세대 간에 여행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만남의 장을 만들거나 멀리서 개최되는 행사 운영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거나 종래의 ‘보러 가는’ 여행과는 다른 ‘움직여 뭔가를 하는’ 타입의 새로운 투어리즘이 증가한다고 본다.

또한, ‘고도(古都)’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관광객을 서로 빼앗는 ‘고도의 동질화’에 대한 대응은 많은 지방정부의 공통과제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더 한층 차별화를 내건 명소 유람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전의 아시아는 지역차가 컸을지 모르나 지금은 많은 과제들을 공유하게 되었다. 본 회합을 계기로 부디 상호교류를 돈독히 하여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